**롬0229 Note**

**◆Cross check : 마음의 할례(렘0926)**

▶렘0404.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여호와께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包皮)들을 치우라, 너희의 행실들의 악함 때문에, 나의 격노가 불과 같이 나아가서,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는 가운데에 불태우지 않을까 하느니라,

렘0926.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의 자녀들과 모압과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페아:입,방향,지역,극(極),구석,끝,측면]들에 있으며, 광야에서 거하는 모두라, 이는 이들의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마음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음이라,

롬0410.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받고 있었을 때였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고 있었을 때였느냐? 할례 받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고 있었을 때였느니라.

고전0719. 할례가 아무것이 아니며, 또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 다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